

복합전치사 ‘爲了/ 爲着’ 연구*

- 明清시기와 現代시기의 작품분석을 기반으로

최재영 · 권선아**

〈目 次〉

1. 들어가는 말
2. 전치사 ‘爲’의 기능과 특징 및 출현시기와 사용현황
3. ‘爲了/ 爲着’의 사용현황 분석과 연원 문제
4. 나오는 말

1. 들어가는 말

중국어 복합전치사의 유형 중 하나가 전치사성 형태소와 조사성 형태소가 결합한 ‘沿着’, ‘趁着’, ‘爲了’, ‘爲着’ 등과 같은 것이다.¹⁾ 중국어문법학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전치사의 문법적 특징 중 하나는 뒤에 ‘了’, ‘着’, ‘過’와 같은 동태조사가 오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X+了/ 着’ 유형의 전치사는 매우 예외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동안 이러한 복합전치사에 대한 연구는 거의 시도되지 않다가 2000년 이후 근대중국어연구의 심화와 함께 ‘X+了/ 着’ 유형의 복합전치사 연구도 주목 받기 시작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복합전치사의 연구는 향후 더욱 연구

* 이 연구는 2014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 최재영: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어통번역학과 교수

권선아: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중어중문학과 박사과정생

1) 馬貝加(2002: 10)는 복합전치사를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1) 두 개의 전치사성 형태소의 결합(按照, 依据), 2) 전치사성 형태소와 조사성 형태소의 결합(爲了, 趁着), 3) 동사성 형태소와 전치사성 형태소의 결합(關於, 由于), 4) 명사성 형태소와 동사성 형태소의 결합(根據), 5) 두 개의 동사성 형태소의 결합(經過)

가 필요한 분야 중 하나임에 분명하다.

기존 연구에 의하면 이러한 'X+了/着' 유형의 복합전치사는 대부분 明清시기 이후 동사 'X'의 문법화와 함께 조사성 형태소인 '了/着'와 결합하면서 출현하였으나, 상고시기에 이미 전치사로 문법화된 전치사 '爲'가 근대중국어시기에 다시 조사성 형태소인 '了/着'와 결합하여 사용된 경우는 주목할 만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爲了/爲着'의 문법화에 관한 논의는 매우 적은 편인데 萬瑩(2006)과 雷冬平(2008)의 연구가 있을 뿐이다. 萬瑩(2006)과 雷冬平(2008)은 동사 '爲'와 동태조사 '了'가 결합하여 '爲了'가 형성된 것이라고 보고 있는 점에서는 견해가 일치하고 있으나 세부적인 내용에서 아래와 같이 몇 가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한다. 먼저 萬瑩(2006: 79~81)의 견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사 '爲了'의 첫 출현은 六朝시기이고 후속동사구가 출현하여 문법화가 시작되는 시기는 明代이며, 清代에 출현빈도가 크게 증가하면서 완전히 전치사로 문법화되었다. '爲着'의 첫 출현은 宋代이고 明代에 후속동사구가 출현하여 문법화가 시작되어 清代에는 출현빈도가 크게 증가하면서 완전히 전치사로 문법화되었다.

둘째, 동사 '爲'는 '돕다(幫助)'라는 의미항목이 있으며 이 '돕다'라는 행위는 역할관계(A가 B를 돕는다면 B는 도와주는 대상임)와 인과관계(A가 B를 돕는 원인은 B이며 나아가 A가 B를 돕는 목적은 B가 이익을 얻게 하기 위한 것임)를 내포한다고 보고, 이를 기반으로 '爲了/爲着'의 연원을 해석하였다. 즉, 원인과 목적을 나타내는 복합전치사 '爲了'는 동사 '爲'('돕다(幫助)'라는 의미항목 중의 인과관계)와 동태조사 '了'가 결합하여 문법화되었으며 문법화 과정 중에 다시 어휘화된 것이다. 복합전치사 '爲着'는 수혜자를 나타내는 경우와 원인-목적을 나타내는 경우로 나누어 연원을 해석할 수 있다. 즉, '爲着'가 수혜자를 나타내는 경우 동사 '爲'('돕다(幫助)'라는 의미항목 중의 역할관계)와 동태조사 '着'가 결합하여 문법화되었으며 문법화 과정 중에 다시 어휘화된 것이고, '爲着'가 원인과 목적을 나타내는 경우 동사 '爲'('돕다(幫助)'라는 의미항목 중의 인과관계)와 동태조사 '着'가 결합

하여 문법화되었으며 문법화 과정 중에 다시 어휘화된 것이다.

셋째, 동사 ‘爲了/爲着’가 전치사로 문법화되는 조건은 ‘N₁+爲了/爲着+N₂+Vp’ 구조의 출현이다.

이어서 雷冬平(2008: 173)의 ‘爲了’에 대한 견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복합전치사 ‘爲了’의 형성과 관련된 시기의 언급이 없다.

둘째, 복합전치사 ‘爲了’의 형성은 ‘하다(做, 幹)’의미의 동사 ‘爲’와 동태조사 ‘了’의 결합으로 이루어졌다.

셋째, 복합전치사 ‘爲了’의 문법화는 재분석의 결과인데 재분석은 ‘爲了’의 목적어 성분의 변화에 따라 결정된다.

이와 같은 견해의 차이는 통사구조에 대한 정확한 성분 분석과 통시적 자료의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분석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明清시기 13종 문헌과 現代시기²⁾ 작가 5인의 소설에 출현한 ‘爲了/爲着’ 예문을 전수 추출하여 결합양상에 따라 분류한 후 각 결합상황에서의 ‘爲了/爲着’의 기능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爲了/爲着’의 연원에 대하여 논의해 보고자 한다. 다음은 본고에서 분석을 위해 사용한 明清시기와 現代시기의 문헌이다.

明代：《金瓶梅詞話》，《水滸傳》，《三國志演義》，《警世通言》，《醒世恒言》，
《喻世明言》，《初刻拍案惊奇》，《二刻拍案惊奇》，《醒世姻緣傳》
清代：《紅樓夢》，《兒女英雄傳》，《老殘游記》，《儒林外史》
現代：老舍의 소설《四世同堂》，《茶館》，魯迅의 소설《故事新編》，《吶
喊》，《彷徨》，張愛玲의 소설《傾城之戀》，《桂花蒸阿小悲秋》，《金

2) 본고에서의 現代시기란 중국문학사에서 다루고 있는 현대문학시기, 즉 1919년 후반~1949년을 말하는데, 현재의 표준중국어(普通話)와는 시기적으로 거리가 있으므로 반영하고 있는 언어현상도 현재의 표준중국어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비교적 늦은 근대중국어시기인 明清시기에 출현한 ‘爲了/爲着’의 사용상황과 변천상황을 고찰하기 위하여 고찰의 범위로 선택하였으며 관련예문은 北京大學漢語語言學研究中心의 ‘CCL語料庫檢索系統’에서 검색하여 분석하였다.

鎖記》,《多少恨》,《等》,《連環套》,《封鎖》,《創世紀》,《霸王別姬》,《紅玫瑰與白玫瑰》), 曹禺의 소설(《雷雨》,《北京人》,《日出》), 錢鐘書의 소설(《圍城》)

2. 전치사 ‘爲’의 기능과 특징 및 출현시기와 사용현황

1) 기능과 특징

복합전치사 ‘爲了 / 爲着’의 생성과정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치사 ‘爲’의 기능과 특징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現代漢語八百詞》(1980/ 2007: 550~552), 《現代漢語詞典》(2005: 1414, 1422) 등에서 밝히고 있는 전치사 ‘爲’의 기능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가. 爲 wéi - 피동을 나타낸다.

- (1) 爲風雪所阻。(눈, 바람에 막혔다.) 《現代漢語八百詞》(1980/ 2007: 551)

나. 爲 wèi

① 대상을 나타낸다.

- (2) 請爲我向主人表示謝意。(나를 대신해서 주인에게 감사인사를 전해 주세요.) 《現代漢語八百詞》(1980/ 2007: 552)

② 원인을 나타낸다.

- (3) 大家都爲這件事高興。(모두들 이 일 때문에 기뻐했다.) 《現代漢語八百詞》(1980/ 2007: 552)

③ 목적을 나타낸다.

- (4) 爲人類和平進步作貢獻。(인류평화의 발전을 위해 공헌하였다.)
《現代漢語八百詞》(1980/ 2007: 552))

위와 같이 전치사 ‘爲’는 ‘wéi’와 ‘wèi’의 음운 형식을 가지고 있고, 피동표지, 대상, 원인, 목적을 나타내는 등의 여러 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 중에서 원인이나 목적을 나타내는 전치사 ‘爲’(wèi)가 구성하는 전치사구는 기존의 전치사구와는 다른 다음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목적어로 사용될 수 있다.³⁾

- (5) 我這次來不只是爲工作，也是爲你。(내가 이번에 온 것은 일 때문만이 아니고, 당신 때문이기도 하다.) 《現代漢語常用詞用法詞典》(1995: 1253)

둘째, 주어 앞에 출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쉼표로 문장을 분리한다.

- (6) 爲幫助後進學生，老師經常早來晚走。(학습이 미진한 학생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선생님은 늘 학교에 일찍 오셔서 늦게 돌아가신다.)
劉月華 等(1983/ 2007: 268)
- (7) 爲此事，我一直充滿着歉意，我是最反對傷害別人的自尊心的。(이 일로 나는 줄곧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다른 사람의 자존심을 다치게 하는 것을 가장 반대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劉月華 等(1983/ 2007: 296)

이상의 두 가지 특징은 주로 동사 앞에 출현하여 부사어의 기능을 수행하는 전형적인 전치사구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점이며 따라서 전치사 ‘爲’가 일종의 ‘비

3) 劉月華 等(1983/ 2007: 270~271)에 의하면 전치사구는 기본적으로 부사어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외에도 드물게 관형어, 보어, 목적어, 주어로 사용될 수 있다.

전형적'인 전치사임을 알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다음 예문과 같이 복합전치사 '爲了/ 爲着' 역시 가지고 이러한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 (8) 他這次來不僅僅是爲了工作, 也是爲了你。(그가 이번에 온 것은 일 때문만이 아니고, 당신 때문이기도 하다.) 劉月華 等(1983/ 2007: 271)
- (9) 爲了她, 我可以犧牲一切。(그녀를 위해서 나는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다.) 劉月華 等(1983/ 2007: 296)
- (10) 爲着我們美好的明天, 朋友們努力吧。(우리의 아름다운 내일을 위해서 친구들아 노력하자.) 劉月華 等(1983/ 2007: 296)

2) 각 기능의 출현시기와 사용현황

전치사 '爲'의 기능과 그 출현시기 및 문법화 과정에 대한 연구로는 太田辰夫(1958/ 2005: 238), 康國章(1999), 馬貝加(2002: 168, 174, 180, 209, 227, 237, 295), 趙大明(2008), 周四貴(2010), 郭飛(2011), 朱麗·李明(2012) 등이 있다. 기존 연구의 공통적인 견해를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치사 '爲'는 상고시기(漢代 이전)에 이미 동사에서 전치사로 문법화되었다.

둘째, 상고시기부터 전치사 '爲'는 대상, 원인, 목적 등을 나타내는 다양한 기능을 가졌다.

기존 연구의 공통적인 견해를 토대로 明清시기 이후에 출현한 아래의 예문을 살펴보면 한 가지 사실을 더 알 수 있다.

- (11) 假如你每賣十扇籠炊餅, 你從明日爲始, 只做五扇籠炊餅出去賣。
(만약 너희들이 증편 열 바구니를 팔고자 한다면, 너는 내일을 시작으로 하여(내일부터) 증편 다섯 바구니를 만들어서 팔러 나가라.) 《金瓶梅詞話》第2回

- (12) 他昨日爲剪這頭發，好不費難。(그는 어제 이 머리카락을 자르기 위해 매우 힘이 들었다.) 《金瓶梅詞話》第12回
- (13) 你們自己以假爲眞，何苦來燒我?” (너희들은 스스로 가짜를 진짜로 여기어 어찌하여 나를 열 받게 하는가?) 《紅樓夢》第7回
- (14) 爲這病請大夫吃藥，也不知白花了多少銀子錢呢! (이 병환 때문에 의사를 불러 약을 먹는데 얼마나 많은 돈을 헛되이 썼는지 모른다네!) 《紅樓夢》第7回
- (15) 進爲純臣，退爲孝子。(들어가서는 충직한 신하이고, 물러나서는 효자이다.) 《兒女英雄傳》第18回
- (16) 我今日可是爲救一個人來了，却不是救你。(나는 오늘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온 것이니 너를 구하려는 것은 아니다.) 《兒女英雄傳》第8回
- (17) 我一定盡力而爲。(나는 반드시 힘을 다하여 행할 것이다.) 《現代漢語八百詞》(1980/ 2007: 550)
- (18) 大家都爲這件事高興。(모두들 이 일 때문에 기뻐하였다.) 《現代漢語八百詞》(1980/ 2007: 552))

위의 예문은 明清시기와 현대에 출현한 ‘爲’의 사용양상을 보여준다. 즉 예문 (11), (13), (15), (17)에서 ‘爲’는 ‘하다’, ‘여기다’, ‘되다’ 등의 동사로 사용되었고, 예문(12), (14), (16), (18)에서 ‘爲’는 ‘목적’, ‘원인’ 등을 나타내는 전치사로 사용되었다. 이와 같이 ‘爲’는 일찍이 상고시기에 동사에서 전치사로 문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대중국어와 현대중국어에서 전치사로서의 주된 기능 이외에도 여전히 동사로서의 기능을 가진 층위화(layering)현상⁴⁾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明代이후 본격적으로 출현하기 시작한 복합전치사 ‘爲了/ 爲着’ 역시 사건 발생의 원인이나 목적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어서 결국 문법기능에 있어서 새롭게 출현한 복합전치사 ‘爲了/ 爲着’의 기능이 기존의 전치사 ‘爲’의 일부 기능과 중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기존에 이미 사건 발생의 원인이나 목적을 나타내는 전치사 ‘爲’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어떠한 동인에 의하여

4) 이성하(1998: 173~174)에 의하면, 층위화(layering)란 옛 층위와 새 층위가 공존하는 현상을 말하는 것이다. 즉, 여러 문법화소들이 같은 기능의 영역 안에서 자꾸 문법화되지만, 옛 층위는 새 층위가 생겨났다고 해서 반드시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시적으로 공존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복합전치사 ‘爲了/ 爲着’가 출현하였을까? 과연 ‘爲了/ 爲着’의 형성이 萬瑩(2006)과 雷冬平(2008)이 주장처럼 동사 ‘爲’와 동태조사 ‘了/ 着’의 결합 후 문법화된 것일까? 사실 ‘爲了/ 爲着’는 상고시기에 이미 전치사로 문법화된 ‘爲’에 일종의 접미사 성분인 ‘了/ 着’⁵⁾가 결합되어 형성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爲了/ 爲着’는 다음과 같이 ‘돕다’ 또는 ‘하다’의미의 동사 ‘爲’와 동태조사 ‘了/ 着’가 함께 사용되다가 다시 사건 발생의 원인이나 목적을 나타내는 전치사로 문법화되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미 전치사로 문법화된 ‘爲’에 접미사 성분인 ‘了/ 着’가 수반된 것이라고 보는 것도 가능하다.

- | | | |
|------------------------|----------|----------------|
| ① 동사 ‘爲’ + 동태조사 ‘了/ 着’ | 문법화
→ | 복합전치사 ‘爲了/ 爲着’ |
| ② 전치사 ‘爲’ + 접미사 ‘了/ 着’ | → | 복합전치사 ‘爲了/ 爲着’ |

전자와 같이 문법화되어 복합전치사가 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오랜 시간이 걸리는 반면 후자의 경우 문법화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므로 복합전치사로 출현한 후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기존의 전치사 ‘爲’처럼 다양한 용법으로 사용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아래에서는 이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겠다.

3. ‘爲了/ 爲着’의 사용현황 분석과 연원 문제

기존의 연구에 의하면 현대중국어의 전치사는 동사로부터 문법화된 것이다. 이때 동사가 전치사로 문법화되기 위한 통사적 전제조건은 ‘V₁+O₁+V₂+O₂’의 연동구조로, 의미중점이 ‘V₂+O₂’에 더욱 치중될 경우 ‘V₁’이 전치사로 문법화된다.⁶⁾ 萬瑩(2006)과 雷冬平(2008)의 주장대로 복합전치사 ‘爲了/ 爲着’가 동사 ‘爲’와

5) 이미 전치사로 문법화된 ‘爲’ 뒤에 결합된 ‘了/ 着’를 동태조사로 볼 수는 없다. 초보적인 견해로는 이음절화를 위해서 사용된 일종의 접미사로 보인다. 馮春田等(2012: 518~619) 역시 이러한 견해를 가지고 있으나 간략한 언급만 있어 이에 대한 심화된 논의는 후속 연구에서 진행하고자 한다.

6)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최재영·권선아(2012: 477~478)를 참고할 것.

동태조사 ‘了/着’의 결합 후 문법화되었다면 ‘爲了/爲着+O₁+V₂+O₂’에 먼저 출현하여 문법화되었을 것이다. 이를 확인해보기 위하여 魏晉南北朝시기부터 元代까지의 각 시기별 대표 문헌인 《世說新語》, 《敦煌變文》, 《祖堂集》, 《朱子語類》, 《新校元刊雜劇三十種》, 《元本老乞大》에서 전치사로 문법화되기 전 단계 또는 전치사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는 ‘爲了/爲着+O₁+V₂+O₂’ 구조의 출현여부를 고찰하였으나 관련 예문은 찾아볼 수 없다. 이어서 明清시기의 13종 문헌과 現代작가 5인의 작품을 분석한 결과 사건 발생의 원인이나 목적을 나타내는 전치사 ‘爲了/爲着’는 연동구조인 ‘爲了/爲着+O₁+V₂(+O₂)’에서뿐만 아니라 비연동구조인 ‘爲了/爲着+O₁’, ‘爲了/爲着+O₁, Sp⁷⁾’, ‘爲了/爲着+O₁, V₂(+O₂)’ 등의 다양한 형식에서 출현하여 사용되고 있다. 아래에서는 이들 형식에 출현한 ‘爲了/爲着’에 대해서 논의해보겠다.

1) 연동구조에 출현한 ‘爲了/爲着’와 그 기능

明清시기의 13종 문헌에서 ‘爲了+O₁+V₂(+O₂)’ 형식은 총 10회, ‘爲着+O₁+V₂(+O₂)’ 형식은 총 21회 출현하고 있다. 다음 예문을 보자.

- (19) “這却甚好，只是你兩個這一番出考，我們都要指望你進學，你却不可爲了別人耽誤了自己的正事。”(이번은 오히려 매우 좋아, 너희 둘이 한 번에 과거에 나가면 우리들은 모두 네가 합격하기를 바랄거야, 너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일을 지체하지 마.) 《醒世姻緣傳》第37回
- (20) 門子道：“我原是衙中門官，爲了些事逐了出來。”(문지기가 “나는 원래 관아의 문지기인데 몇 가지 일 때문에 쫓겨나왔어.”라고 말하였다.) 《初刻拍案驚奇》第26卷
- (21) 又是爲了什麼打他?”(또 무엇 때문에 그를 때립니까?) 《紅樓夢》

7) ‘爲了/爲着+O₁, Sp’ 형식은 앞의 예문(6)~(7)과 같이 전형적인 ‘S+爲了/爲着+O₁+V₂(+O₂)’ 형식에서 전치사구인 ‘爲了/爲着+O₁’ 부분이 주어 앞에 출현하고 겹표로 문장이 분리된 경우를 가리킨다. 이 경우 겹표 뒤의 문장은 ‘S+V₂(+O₂)’를 기반으로 한 ‘주술어문’인데 복잡한 문장 형식으로 출현하는 경우가 많아서 단순히 ‘爲了/爲着+O₁, S+V₂(+O₂)’라고 표기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Sp’로 표기하기로 한다.

第48回

(22) 你我同是溫州人，也須有些鄉裏之情，何苦到爲着別處人報仇！(너와 나는溫州사람으로 고향의 정도 있을 터인데 어찌하여 다른 지방 사람을 위해서 복수를 하는 것인가!) 《初刻拍案惊奇》第11卷

(23) 這一翻，安老爺、安太太爲着自己的事自然不好說話。(이번에 安老爺와 安太太는 자신의 일 때문에 자연스레 말하기 쉽지 않았다.) 《兒女英雄傳》第25回

위의 예문에서 볼 수 있듯이 ‘爲了’와 ‘爲着’는 명사(구)와 결합하여 사건 발생의 원인 또는 목적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明清시기에 출현한 앞의 예문(12)(他昨日爲剪這頭髮，好不非難)，(14)(爲這病請大夫吃藥)，(16)(我今日可是爲救一個人來了) 중의 원인, 목적을 나타내는 전치사 ‘爲’와 기능적으로 별다른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만일, 萬瑩(2006)과 雷冬平(2008)의 주장대로 복합전치사 ‘爲了/爲着’가 明代에 동사 ‘爲’와 동태조사 ‘了/着’의 결합 후 문법화되기 시작하여 清代에 완성되었다면 동사의 기능으로 더 많이 사용되었던 明代에는 ‘돕다’ 또는 ‘하다’의미의 동사와 동태조사 ‘了/着’가 결합한 용법과 ‘원인’과 ‘목적’을 나타내는 전치사로서의 용법으로 분석 가능한 예문이 당연히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제시된 예문들은 모두 전치사로서의 용법으로만 분석되어진다. 따라서 ‘爲了/爲着’가 동사 뒤에 동태조사 ‘了/着’와 결합 후 문법화되었다는 주장은 재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現代의 작품에서도 ‘爲了/爲着’의 이러한 용례를 찾아 볼 수 있는데 ‘爲了+O₁+V₂(+O₂)’ 형식은 총 41회, ‘爲着+O₁+V₂(+O₂)’ 형식은 총 12회 출현하고 있다. 다음 예문을 보자.

(24) 不能爲了幾塊錢出賣朋友。(돈 몇 푼 때문에 친구를 팔 수 없다.)
《四世同堂》

(25) 昨天蘇小姐就對我說，她爲了得學位寫那本書，其實她并不瞧得起那些人的詩。(어제 蘇양은 나에게 그녀는 학위를 얻기 위해 그 책을 쓰는 것이며 사실 그녀는 결코 그 사람들의 시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圍城》

- (26) 你忘記媽三年前爲着你的病幾乎死了麼?(너는 어머니가 3년 전에 너의 병 때문에 거의 죽을 뻔 했던 것을 잊었니?) 《雷雨》

위에서 볼 수 있듯이 現代에 이르러 ‘爲了/ 爲着’의 출현빈도 증가와 함께 ‘爲了/ 爲着’의 목적어 성분도 변화하여, 明清시기의 용례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동사구 목적어(예문(25)의 ‘得學位’)가 출현하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爲了’와 ‘爲着’의 목적어가 명사(구)에서 동사(구)로 확대된 이유는 ‘원인’이나 ‘목적’을 나타내는 경우 단순하게는 사람, 사물일 수 있으나, 심화된 표현을 위해서는 어떤 행위나 동작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爲了’와 ‘爲着’의 사용빈도 증가와 함께 자연스럽게 동사(구) 목적어가 출현한 것으로 보인다.

2) 비(非)연동구조에 출현한 ‘爲了/ 爲着’와 그 기능

‘爲了/ 爲着’는 비(非)연동구조인 ‘爲了/ 爲着+O₁’, ‘爲了/ 爲着+O₁, Sp’, ‘爲了/ 爲着+O₁, V₂(+O₂)’등에도 출현하고 있는데 연동구조(총84회)에 비하여 훨씬 높은 출현빈도(312회)를 보이고 있다.

(1) ‘爲了/ 爲着+O₁’ 형식에 출현한 ‘爲了/ 爲着’와 그 기능

明清시기에 ‘爲了+O₁’ 형식은 총 8회, ‘爲着+O₁’ 형식은 총 11회 출현하고 있다. 다음 예문을 보자.

- (27) 就使費了幾兩銀子, 不會爲了別人。(설사 은전 몇 냥을 사용했더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하지는 않았어요.) 《金瓶梅詞話》第98回

- (28) 此番帶了這項金銀, 就是爲了父親的官事。(이번에 금과 은을 가져갔는데 이는 아버지의 소송 때문이다.) 《兒女英雄傳》第11回

- (29) 泪汪汪的, 忍着氣恨命, 又轉了一念道: “他們如此算計我, 則爲着這些浮財。(눈물이 그렇그런 채 화를 참으며 생각을 바꿔 “그들이 이와 같이 나를 생각한 것은 이 재산 때문이다.”라고 말하였

다. 《初刻拍案惊奇》第38卷

- (30) 劉璞焦躁道：“且說爲着甚的？”(劉璞는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입니까?”라고 급하게 말했다.) 《醒世恒言》第8卷
- (31) 我想薛妹妹此去，想必爲着前時搜檢衆丫頭的東西的原故。(나는薛씨 동생이 이번에 간 것은 분명히 지난번 여자하인들의 물건을 조사한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紅樓夢》第78回
- (32) 他到此究竟爲着些甚麼事？(그가 이곳으로 온 것은 도대체 무슨 일들 때문입니까?) 《兒女英雄傳》第5回

예문(27)~(32)에서 ‘爲了/爲着’는 하나의 목적어만을 수반하고 있으며 뒷부분에 ‘V₂(+O₂)’가 출현하지 않고 있어서 구조적으로 보기에는 전형적인 동사구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爲了/爲着’를 ‘돕다’ 또는 ‘하다’의미의 동사로 이해하기보다는 오히려 원인이나 목적 등을 나타내는 전치사로 이해하는 것이 전후 문맥에 적합하다. 구체적으로 이상의 예문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예문(27)의 경우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앞부분에 春梅가 ‘爲娶我兄弟媳婦，又費許多東西。(내 제수를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또 많은 돈을 썼네요.)’라고 말하자 守備가 이에 대답한 내용 중의 일부분이 ‘就使費了幾兩銀子，不曾爲了別人.’이다. 따라서 ‘不曾爲了別人’은 뒤에 ‘費’가 생략된 문장임을 알 수 있고, 나아가 ‘爲娶我兄弟媳婦’ 중의 ‘爲’와 ‘不曾爲了別人’ 중의 ‘爲了’가 동일하게 목적을 나타내는 전치사의 기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머지 예문(28)~(32)에 출현한 ‘爲了/爲着+O₁’는 전후 문맥을 고려할 때 모두 문장의 목적어 성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계사 ‘是’가 출현하여 목적어 성분임이 분명한 예문(25)를 제외한 나머지 예문에서는 ‘爲了/爲着+O₁’의 앞에 ‘是’가 출현하지 않고 있지만 모두 어떠한 사건의 발생 원인이나 목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明清시기에는 아래의 예문과 같이 문미에 출현하는 ‘爲+O₁’ 형식의 예문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 (33) 亡身喪命皆因此，破業傾家總爲他。(목숨을 잃은 것은 모두 이 때문이며, 집안이 망한 것은 모두 그 때문이다.) 《金瓶梅詞話》第6回

- (34) 安老爺故作惊疑, 問道: “這却爲何?” (安영감은 고의로 놀란 척 하며 “이것은 도리어 무엇 때문인가?”라고 물었다.) 《兒女英雄傳》 第16回
- (35) 上前一把拉住, 大笑道: “老哥哥, 你氣了這半日, 原來爲此。”(앞에 나서서 끌어당겨 붙잡고 크게 웃으며 “형님, 오늘 한나절 동안 화가 나셨는데 알고 보니 이 때문이군요.”라고 말하였다.) 《兒女英雄傳》 第31回

흥미로운 점은 예문(33)~(35)에서 출현한 ‘爲+O₁’ 역시 전후 문맥을 고려할 때 계사 ‘是’가 생략된 문장의 목적어 성분으로 출현하여 사건 발생의 원인이나 목적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現代의 작품 중에서도 ‘爲了+O₁’ 형식은 총 62회, ‘爲着+O₁’ 형식은 총 13회 출현하고 있는데 明清시기와는 출현양상이 다소 다르다. 다음 예문을 보자.

- (36) 你們捕了我來, 我還不曉得爲了什麼。(너희들은 나를 잡아 왔는데 나는 아직 무엇 때문인지 모른다.) 《四世同堂》
- (37) “也還是爲了無聊的事。”(여전히 아무것도 아닌 일 때문이다.) 《彷徨·在酒樓上》
- (38) 你那麼老遠跑到這兒來, 難道是爲了這個嗎?(당신이 멀리서 여기까지 뛰어온 것이 설마 이것 때문입니까?) 《日出》
- (39) 你們這一幫子趕到我這兒來, 是爲了找一個小姑娘呀。(너희들이 서둘러 나에게 온 것은 한 소녀를 찾기 위해서였구나.) 《日出》
- (40) 方鴻漸不吃早點就出門, 確爲了躲避周太太。(方鴻漸이 아침도 거르고 나간 것은 분명히 周太太를 피하기 위해서이다.) 《圍城》
- (41) 多少年我總是留着, 爲着紀念你。(몇 년 동안 내가 항상 머물러 있던 것은 당신을 기념하기 위해서였다.) 《雷雨》

위의 예문(36)~(39)에서 볼 수 있듯이 ‘爲了/ 爲着+O₁’ 형식이 동사 ‘曉得’와 계사 ‘是’의 목적어로 출현하고 있어 현재의 표준중국어에서의 사용과 더욱 근접해졌음을 알 수 있다. 동시에 예문(40), (41)과 같이 계사 ‘是’가 생략된 경우도 출현하고 있어 여전히 변천과정 중임을 짐작할 수 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의 표준중국어에서 ‘爲+O₁’, ‘爲了/ 爲着+O₁’ 등이 목적어의 자리에 출현하

여 사건 발생의 원인이나 목적을 나타내는 것은 전치사 ‘爲’, ‘爲了/爲着’의 공통된 특징 중 하나이다. 따라서 明清시기에 출현한 이상의 ‘爲了/爲着’는 비록 대부분 계사 ‘是’가 생략되었으나 전후 문맥으로 보아 사건 발생의 원인이나 목적을 나타내는 전치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爲了/爲着+O₁, Sp’에 출현한 ‘爲了/爲着’와 그 기능

明清시기에 ‘爲了+O₁, Sp’ 형식은 총 7회, ‘爲着+O₁, Sp’ 형식은 총 9회 출현하고 있다.

- (42) 爲了你這事，我還爬下給人家磕了個頭，今日才來的，怎麼你說人家來的不光明正大呢？”(너의 일 때문에 내가 사람들에게 엎드려 머리를 조아리고 오늘에서야 왔는데, 어찌하여 너는 내가 정정당당하지 못하게 왔다고 말하느냐?) 《兒女英雄傳》第19回
- (43) 又如今人爲着幾貨錢鈔上，兄弟分顏，朋友破口。(또 오늘날 사람들은 몇 푼 돈 때문에 형제간에는 반목하고 친구들은 욕설을 퍼붓는다.) 《喻世明言》第13卷
- (44) 王婆道：“爲着秀才官人，鞋子都走破了。”(王婆는 “생원 벼슬 때문에(생원 벼슬하느라) 신발까지 닳아 떨어졌다.”라고 말하였다.) 《初刻拍案惊奇》第10卷

‘2. 1)(전치사 ‘爲’의) 기능과 특징’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의 표준중국어에서 사건 발생의 원인이나 목적을 나타내는 전치사 ‘爲’, ‘爲了/爲着’는 비전형적인 문법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주어 앞에 출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삽표로 문장을 분리한다’라는 특징이다. 예문(42)~(44)에서 사용된 ‘爲了/爲着’는 사건 발생의 원인이나 목적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예문은 전치사 ‘爲了/爲着’의 비전형적인 문법적 특징으로 인해 출현한 것으로 보인다. 明清시기에는 다음 예문과 같이 ‘爲+O₁, Sp’ 형식의 예문도 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 (45) 去年爲后邊大菩薩喜事，他還說我背地得了多少錢，攤了一半與他才罷了。(작년에 보살의 혼사로 인해 그는 내가 몰래 돈을 좀 벌

었으니 반을 떼어서 자신에게 주면 된다고 말하였다.) 《金瓶梅詞話》第73回

- (46) 襲人道：“姑娘快休如此，將來只怕比這個更奇怪的笑話兒還有呢！若爲他這種行止，你多心傷感，只怕你傷感不了呢。快別多心！”（襲인이(林黛玉에게) “아가씨 그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 이보다 더 이상한 이야기가 아마 더 있을 거예요! 만일 그의 이런 행동 때문에 걱정을 한다면 (앞으로 들게 될 이야기에) 걱정할 수 없을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紅樓夢》第3回

- (47) 這裏也是你老人家的家，咱們家裏通共你老人家舍姨奶奶兩位，都在這裏呢，到西庄兒上又見誰去？要就爲咱們家那幾間房子，人家二叔、二嬸儿大概都見過。（褚大娘子가 자신의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이곳도 아버지 집입니다. 우리 집에 다 합쳐서 아버지와 이 모할머니 두 분이 계시는데 모두 여기 계시니 西庄儿에 또 누구를 보러 가나요? 우리 집의 방 몇 칸 때문에 둘째 숙부와 숙모는 아마도 만났을 겁니다.) 《兒女英雄傳》第21回

예문(45)~(47) 역시 ‘爲+O_i, Sp’ 형식으로 출현하고 있으며 각 예문에서 ‘爲’는 사건 발생의 원인이나 목적을 나타내는 전치사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전치사 ‘爲’, ‘爲了/ 爲着’는 이미 明清시기에 주어 앞에 출현하여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형식은 現代의 작품에 더 많이 출현하는데 ‘爲了+O_i, Sp’ 형식은 총 79회, ‘爲着+O_i, Sp’ 형식은 총 7회 출현하고 있다.

- (48) 爲了生存，你們須把它挂在胸上！（생존을 위해서 너희들은 그것을 가슴에 걸어야 한다.）《四世同堂》
- (49) 爲了報復小仇小怨，他不惜認敵作父。（작은 원한을 갚기 위해서 그는 기꺼이 적을 아버지로 삼았다.）《四世同堂》
- (50) 不過現在我也不要跟他鬧了，爲了肚裏的孩子，我不能再跟他鬧了——女人就是這點苦呀！”（그러나 지금은 나 역시 그와 다투지 않으려고 해, 뱃속의 아이를 위해서 나는 다시 그와 다퉴 수 없게 되었어—여인은 이렇게 고통스럽구나!）《創世紀》
- (51) 爲着她自己的孩子，她嫁過兩次。（그녀 자신의 아이를 위해서 그녀는 시집을 두 번 갔다.）《雷雨》

現代의 작품에서도 ‘爲了/爲着+O₁, Sp’ 형식은 목적어의 충당성분이 확대되어 동사구가 출현하였다는 점(예문(49)의 ‘報復小仇小怨’)을 제외하고 출현양상이 明清시기와 그다지 다르지 않다. 따라서 ‘爲了+O₁, Sp’ 형식은 明代에 출현한 이후 현재의 표준중국어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사건 발생의 원인이나 목적을 나타내는 전치사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爲了/爲着+O₁, V₂(+O₂)’에 출현한 ‘爲了/爲着’와 그 기능

明清시기에 ‘爲了+O₁, V₂(+O₂)’ 형식은 총 26회, ‘爲着+O₁, V₂(+O₂)’ 형식은 총 17회 출현하고 있다.⁸⁾

- (52) 文嫂道：“小媳婦因不幸，爲了場官司，把舊時那房兒棄了，如今搬在大南首王家巷住哩。”(文씨 아주머니는 “제가 불행하여 소송 때문에 예전의 그 집을 버렸고 오늘날 大南首王家巷으로 이사 왔습니다.”라고 말하였다.) 《金瓶梅詞話》第69回
- (53) 操笑曰：“你爲了一婦人，害了你姐夫一家，留此不義之人何用！”(조조가 웃으면서 “너는 부인을 위해서 너의 제부 일가를 살해하였으니 이 의미 없는 사람을 남겨 무엇에 쓰겠는가!”하고 말하였다.) 《三國志演義》第57回
- (54) 吳氏道：“爲了你，說不得！”(吳氏는 “너를 위해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하였다.) 《初刻拍案惊奇》第17卷
- (55) 但是何苦爲了馮君瑞一個人，興師動衆？(그러나 어찌하여 馮君瑞과 같은 사람 때문에 많은 군사를 동원하는가?) 《儒林外史》第43回
- (56) 只爲着幾十文錢，當使不使，弄了個大沒意思。(단지 돈 몇십 전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게 된다.) 《醒世姻緣傳》第

8) 분석 시에 ‘爲了/爲着+O₁, V₂(+O₂)’ 형식 중에서 ‘V₂(+O₂)’가 ‘O₁ 때문에/ 위해서’ 발생한 행위-동작을 나타내는 경우에만 본 형식으로 분류하였고, 아래와 같이 비록 ‘爲了/爲着+O₁, V₂(+O₂)’의 형식으로 출현하더라도 ‘V₂(+O₂)’, 즉 ‘有什麼呢’(무엇이 있겠는가?)가 ‘O₁(아이들)을 위해서’ 발생한 행위-동작을 나타내지 않는 경우는 제외시켰다.

活着吃苦不爲着小孩子們，還有什麼呢？(살아서 고생하는 것이 아이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무엇이 있겠는가?) 《北京人》

위의 예문 중 앞부분은 사실 ‘活着吃苦不是爲着小孩子們的’ 의미이므로 본고에서는 ‘爲了/爲着+O₁’ 형식으로 분류하였다.

13回

- (57) 切不可爲着區區財產，傷了天性之恩。(절대로 작은 재산 때문에 타고난 은혜를 저버리지 말아라.) 《初刻拍案惊奇》第33卷

위의 예문에서와 같이 ‘爲了/ 爲着’는 명사(구) 성분의 목적어를 수반한 후, 이어 후속 동사구를 취한다. 이러한 형식은 앞에서 언급한 전치사로 문법화되기 위한 통사적 전제인 연동구조($V_1+O_1+V_2+O_2$)와 비슷하지만, 쉽표로 분절되어 있는 점이 다르다. 그러나 이러한 형식 중의 ‘爲了/ 爲着’ 역시 쉽표가 없는 ‘爲了/ 爲着+ $O_1+V_2+O_2$ ’에서의 ‘爲了/ 爲着’와 동일하게 사건 발생의 원인이나 목적을 나타내고 있다. 明清시기의 문헌에는 사건 발생의 원인이나 목적을 나타내는 전치사 ‘爲’ 역시 쉽표로 분절되어 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 예문을 보자.

- (58) 今日爲拜錢，又和他合了回氣。(오늘 拜錢(신부의 집을 방문할 때 선물하는 예물과 돈) 때문에 그에게 또 한 번 화를 냈다.) 《金瓶梅詞話》第35回
- (59) 宝玉嘆氣說道：“不過爲那些事，問他做什麼！”(宝玉은 탄식하며 “하지만 그 일 때문에 그에게 물어보았자 무엇하겠는가!”) 《紅樓夢》第34回

예문(58)~(59)는 ‘爲+ O_1 , $V_2(+O_2)$ ’의 형식으로 출현하였지만 문장 내에서 ‘爲’의 기능은 사건 발생의 원인이나 목적을 나타내는 전치사로 보아야 한다. 現代의 작품 속에서도 이와 같은 형식을 찾아볼 수 있는데 ‘爲了+ O_1 , $V_2(+O_2)$ ’ 형식은 총 68회, ‘爲着+ O_1 , $V_2(+O_2)$ ’ 형식은 총 5회 출현하고 있다.

- (60) 至于錢家的婦女，她們并不是因爲男子專制而不出大門，而倒是爲了服裝太舊，自慚形穢。(錢씨 집안의 여자들에게 대해 말하자면 그들은 결코 남자들의 독재로 인해 대문 출입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복장이 너무 오래된 것이었기 때문에 스스로 부끄럽게 생각하였던 것이다.) 《四世同堂》
- (61) 別爲了我的事，給你自已找麻煩！(나의 일 때문에 너 스스로를 번거롭게 하지 마라!) 《茶館》

- (62) 爲了便于計算, 將每五十名考取者的姓名寫成一個圓圖; 開始一名比較大的字提高寫, 其次沿時針方向自右至左寫去。(계산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각 50명의 수험자의 이름을 하나의 원형으로 썼다. 한 명이 비교적 크게 높이 쓰기 시작하면 다음은 이어서 시계방향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내려 갔다.) 《吶喊·白光》
- (63) 狗爲着追求水裏肉骨頭的影子, 喪失了到嘴的肉骨頭! (개는 물속에 비친 뼈다귀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입에 있는 뼈다귀를 잃어버렸다.) 《圍城》

明清시기의 사용상황과 마찬가지로 現代의 작품에 사용된 ‘爲了/爲着’ 역시 모두 사건 발생의 원인이나 목적을 나타내는 전치사로 사용되고 있다. 다만 목적어 성분으로 예문(60)의 ‘服裝太舊’와 같은 주술구 또는 예문(62)의 ‘便于計算’, 예문(63)의 ‘追求水裏肉骨頭的影子’와 같은 동사구가 출현하고 있다.

이러한 형식의 출현 원인은 무엇인가? 본고의 초보적인 견해는 다음과 같다.⁹⁾

우선 이상에서 논의한 ‘爲了/爲着+O₁, V₂(+O₂)’ 형식은 다시 문장 내에 주어가 출현하는지 여부에 따라 두 가지 유형, 즉 ‘爲了/爲着+O₁, V₂(+O₂)’ 형식과 ‘S+爲了/爲着+O₁, V₂(+O₂)’ 형식으로 세분할 수 있으며 이 두 가지 형식의 출현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爲了/爲着+O₁, V₂(+O₂)’ 형식의 경우, 사건 발생의 원인이나 목적을 강조하기 위하여 ‘爲了/爲着+O₁’이 문두로 이동한 ‘爲了/爲着+O₁, S+V₂(+O₂)’ 형식의 출현과 동시에 전후 문맥에 의해 화자와 청자가 주어를 서로 알고 있는 경우 주어가 생략되어 출현한 것으로 보인다. 드물긴 하지만 현재의 표준중국어에서도 이러한 형식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9) 사실 섭표를 사용하여 문장을 분절하는 것은 現代문학작품의 저자 또는 明清시기 소설의 교감자가 문장구조를 분석한 후 해당 성분의 문법 기능에 따라 진행한 것은 아니다. 現代문학작품의 저자인 경우 본인의 언어적 직관력(語感)에 따라 섭표로 분절을 한 것이지만, 明清시기 소설의 교감자는 당시의 언어 사용을 알고 섭표로 분절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明清시기 작품에 나타난 ‘爲了/爲着+O₁, V₂(+O₂)’ 형식은 해당 작품의 교감자가 다분히 현대적 언어 현상의 영향을 받아서 나타났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다음은 이러한 사실을 감안하고 추론을 해본 것이다.

- (64) 爲避免差錯, 最好再檢查一遍。(착오를 피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검사하는 게 좋다.) 《現代漢語八百詞》(1980/ 2007: 552)
- (65) 駕駛員抱歉地說: “爲了安全, 只好耽誤你們寶貴時間了。” (운전사가 “안전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사용하겠습니다.”라고 무척 미안해하며 말했다.) (CCL Corpus)

위의 예문은 ‘爲/ 爲了+O₁, V₂(+O₂)’ 형식으로 출현하고 있는데 문맥을 살펴보면 이는 ‘爲/ 爲了+O₁, S+V₂(+O₂)’ 형식에서 주어가 생략된 경우임을 알 수 있다.

둘째로 ‘S+爲了/ 爲着+O₁, V₂(+O₂)’ 형식의 경우, 現代문학작품의 저자 또는 明清시기 소설의 교감자가 이상의 ‘爲/ 爲了+O₁, S+V₂(+O₂)’ 형식과 ‘爲/ 爲了+O₁, V₂(+O₂)’ 형식의 출현으로 인하여 기존의 전형적인 ‘S+爲了/ 爲着+O₁+V₂(+O₂)’ 형식을 분절함으로써 출현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형식은 중간의 쉼표를 삭제할 경우 전형적인 ‘S+爲了/ 爲着+O₁+V₂(+O₂)’ 형식으로 볼 수 있으며 실제로도 중간의 쉼표는 어떠한 기능을 하고 있지 않다. 또한 《現代漢語八百詞》(1980)나 劉月華 等(1983)에서도 이러한 용법을 소개하고 있지 않고 있어서 전형적인 형식으로 보기는 어렵다.

[표1] ‘爲了+O₁, V₂(+O₂)’ 형식의 출현빈도표

결합양상 시기	爲了+O ₁ , V ₂ (+O ₂)	S+爲了+O ₁ , V ₂ (+O ₂)	계
明代	11(68.7%)	5(31.3%)	16(100%)
清代	7(87.5%)	1(12.5%)	8(100%)
現代	48(77.4%)	14(22.6%)	62(100%)
총계	66(76.7%)	20(23.3%)	86(100%)

[표2] '爲着+O₁, V₂(+O₂)' 형식의 출현빈도표

결합양상 시기	爲着+O ₁ , V ₂ (+O ₂)	S+爲着+O ₁ , V ₂ (+O ₂)	계
明代	7(87.5%)	1(12.5%)	8(100%)
清代	5(71.4%)	2(28.6%)	7(100%)
現代	1(50.0%)	1(50.0%)	2(100%)
총계	13(76.5%)	4(23.5%)	17(100%)

위의 [표1], [표2]에서도 볼 수 있듯이 明淸시기의 작품과 現代의 문학작품에서 나타난 '爲了/ 爲着+O₁, V₂(+O₂)' 형식은 쉽표 뒤의 절에서 주어가 생략된 경우(약 77%)가 문두에 주어가 출현한 경우(약 23%)보다 출현빈도가 훨씬 높다. 즉, 대부분의 '爲了/ 爲着+O₁, V₂(+O₂)' 형식은 '爲了/ 爲着+O₁, S+V₂(+O₂)' 형식에서 문장의 주어가 생략되어 출현한 것이고, 일부의 경우 정상적인 'S+爲了/ 爲着+O₁+V₂(+O₂)' 형식을 분절하여 출현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두 가지 경우의 '爲了/ 爲着'는 모두 사건 발생의 원인이나 목적을 나타내는 전치사로 사용되고 있다.

3) '爲了/ 爲着'의 연원 문제

이상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明淸시기와 現代시기의 '爲了/ 爲着'는 연동구조인 '爲了/ 爲着+O₁+V₂(+O₂)'에서 뿐만 아니라 비연동구조인 '爲了/ 爲着+O₁', '爲了/ 爲着+O₁, Sp', '爲了/ 爲着+O₁, V₂(+O₂)' 등의 다양한 형식에서 출현하여 사건 발생의 원인이나 목적을 나타내는 전치사로 사용되었다. 다음은 이러한 '爲了/ 爲着'의 출현빈도를 정리한 표이다.

[표3] '爲了'의 결합양상에 대한 시기별 출현빈도표

문헌		결합양상	연동구조	비(非)연동구조			계
			爲了+O ₁ +V ₂ (+O ₂)	爲了+O ₁	爲了+O ₁ . Sp	爲了+O ₁ . V ₂ (+O ₂)	
明代		金瓶梅詞話	1(12.5%)	2(25.0%)	-	5(62.5%)	8(100%)
		水滸傳	-	-	-	1(100%)	1(100%)
		三國志演義	-	-	-	1(100%)	1(100%)
		醒世如羅劇傳	3(30.0%)	1(10.0%)	2(20.0%)	4(40.0%)	10(100%)
		警世通言	-	-	-	-	-
		醒世恒言	-	-	-	-	-
		喻世明言	-	-	-	-	-
		初刻拍案惊奇	2(28.6%)	1(14.3%)	1(14.3%)	3(42.8%)	7(100%)
		二刻拍案惊奇	-	-	1(33.3%)	2(66.7%)	3(100%)
清代		계	6(20.0%)	4(13.3%)	4(13.3%)	16(53.4%)	30(100%)
		紅樓夢	1(25.0%)	1(25.0%)	1(25.0%)	1(25.0%)	4(100%)
		兒女英雄傳	2(14.3%)	4(28.6%)	2(14.3%)	6(42.8%)	14(100%)
		老殘游記	1(50.0%)	1(50.0%)	-	-	2(100%)
		儒林外史	-	-	-	1(100%)	1(100%)
現代		계	4(19.0%)	6(28.6%)	3(14.3%)	8(38.1%)	21(100%)
		老舍의 작품	14(10.0%)	41(29.3%)	58(41.4%)	27(19.3%)	140(100%)
		魯迅의 작품	5(21.7%)	6(26.1%)	4(17.4%)	8(34.8%)	23(100%)
		曹禺의 작품	1(12.5%)	6(75.0%)	-	1(12.5%)	8(100%)
		張愛玲의 작품	14(30.4%)	9(19.6%)	6(13.0%)	17(37.0%)	46(100%)
		錢鐘樹의 작품	7(21.2%)	6(18.2%)	11(33.3%)	9(27.3%)	33(100%)
총계		계	41(16.4%)	68(27.2%)	79(31.6%)	62(24.8%)	250(100%)
		총계	51(16.9%)	78(25.9%)	86(28.6%)	86(28.6%)	301(100%)

[표4] '爲着'의 결합양상에 대한 시기별 출현빈도표

문헌		결합양상	연동구조	비(非)연동구조			계
			爲着+O ₁ +V ₂ (+O ₂)	爲着+O ₁	爲着+O ₁ . Sp	爲着+O ₁ . V ₂ (+O ₂)	
明代		金瓶梅詞話	-	-	-	1(100%)	1(100%)
		水滸傳	-	-	-	-	-
		三國志演義	-	-	-	-	-

	醒世姻緣傳	1(16.7%)	1(16.7%)	1(16.6%)	3(50.0%)	6(100%)
	警世通言	-	-	-	-	-
	醒世恒言	-	1(50.0%)	1(50.0%)	-	2(100%)
	喻世明言	-	2(66.7%)	1(33.3%)	-	3(100%)
	初刻拍案惊奇	4(36.4%)	3(27.3%)	1(9.0%)	3(27.3%)	11(100%)
	二刻拍案惊奇	3(42.8%)	1(14.3%)	2(28.6%)	1(14.3%)	7(100%)
	계	8(26.7%)	8(26.7%)	6(19.9%)	8(26.7%)	30(100%)
		22(73.3%)				
清代	紅樓夢	-	1(100%)	-	-	1(100%)
	兒女英雄傳	13(50.0%)	4(15.4%)	3(11.5%)	6(23.1%)	26(100%)
	老殘遊記	-	-	-	-	-
	儒林外史	-	-	-	1(100%)	1(100%)
	계	13(46.4%)	5(17.9%)	3(10.7%)	7(25.0%)	28(100%)
		15(53.6%)				
現代	老舍의 작품	-	-	-	-	-
	魯迅의 작품	1(50.0%)	1(50.0%)	-	-	2(100%)
	曹禺의 작품	11(34.4%)	14(43.8%)	6(18.7%)	1(3.1%)	32(100%)
	張愛玲의 작품	-	1(100%)	-	-	1(100%)
	錢鐘樹의 작품	-	1(50.0%)	-	1(50.0%)	2(100%)
	계	12(32.5%)	17(45.9%)	6(16.2%)	2(5.4%)	37(100%)
		25(67.5%)				
총계		33(34.7%)	30(31.6%)	15(15.8%)	17(17.9%)	95(100%)
		62(65.3%)				

‘爲了/爲着’가 만약 萬瑩(2006)과 雷冬平(2008)의 주장과 같이 ‘爲’와 동태조사 ‘了/着’의 결합 후 문법화되었다면 일반적으로 동사가 전치사로 문법화되는 다음 과정을 거쳤을 가능성이 높다.

1단계: 문법화를 위한 통사적 전제조건의 출현.

동사 ‘爲’+동태조사 ‘了/着’+O₁+V₂+O₂

2단계: 재분석에 의한 문법화. 이 경우 ‘爲了/爲着’는 ‘동사+동태조사’ 또는 ‘복합 전치사’로 모두 분석이 가능한 층위화 현상을 나타낼 수 있다.

복합전치사 ‘爲了/爲着’+O₁+V₂+O₂ [O₁=명사(구)]

3단계: 문법화의 성숙. ‘爲了/爲着’의 문법화가 심화되면서 기존에 사건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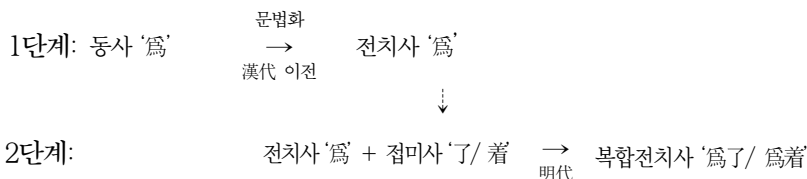
의 원인이나 목적을 나타내는 전치사 ‘爲’처럼 ‘O₁’의 충당 성분이 명사(구)에서 동사(구) 또는 주술구로 확대되고, 문미에서 목적어로 사용되거나 주어 앞에 출현하는 등의 비전형적인 용법으로 사용된다.

‘爲了/ 爲着’+O₁+V₂+O₂ [O₁=명사(구), 동사(구), 주술구]

S+V(+O)+是+‘爲了/ 爲着’+O₁

‘爲了/ 爲着’+O₁, S+V₂+O₂

그러나 이상의 논의에서 알 수 있듯이 ‘爲了/ 爲着’는 明代에 출현과 동시에 3단계(문법화의 성숙) 상황에서도 출현이 가능한 유형들이 함께 나타나고 있다. 게다가 [표3]과 [표4]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연동구조보다 비연동구조에서의 출현이 더 많아 일반적인 동사의 문법화과정을 거쳤다고 보기 어렵다.¹⁰⁾ 따라서 ‘爲了/ 爲着’는 다음과 같이 기존의 사건 발생의 원인이나 목적을 나타내는 전치사 ‘爲’에 접미사 ‘了/ 着’가 결합되어서 출현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기존의 전치사 ‘爲’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爲了/ 爲着’가 출현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아마도 ‘爲’라는 단어에 부여된 기능(각종 의미의 동사, 각종 기능의 전치사 등)이 지나치게 많기 때문에 비교적 사용빈도가 높은 전치사 ‘爲’ (‘사건 발생의 원인이나 목적’을 나타내는 경우)을 다른 기능과의 구분을 위해서

10) ‘X+了/ 着’ 유형의 복합전치사 중 하나인 ‘趁着’는 일반적인 문법화 과정에 따라 明代 초기에는 동사 ‘趁’에 동태조사 ‘着’가 결합하여 사용되다가 다시 복합전치사로 문법화되었다. 또한 ‘趁着’의 문법화는 明代에 동사 ‘趁’이 전치사로 문법화된 점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최재영·권선아(2011)를 참고할 것.

접미사 ‘了/ 着’를 결합하여 사용한 것으로 추측된다.

4. 나오는 말

본고에서는 明清시기 13종 문헌과 現代시기 작가 5인의 소설에 출현한 ‘爲了/ 爲着’ 예문을 전수 추출하여 결합양상에 따라 분류한 후 각 결합상황에서의 ‘爲了/ 爲着’의 기능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爲了/ 爲着’의 연원에 대하여 논의해 보았다. 고찰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복합전치사 ‘爲了/ 爲着’의 출현은 明代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둘째, 복합전치사 ‘爲了/ 爲着’가 수반하는 목적어의 충당성분은 明清시기에는 명사(구)로 제한되었으나 現代시기에 이르러 확대되어 명사구뿐만 아니라 동사(구) 또는 주술구까지 출현하였다.

셋째, ‘爲了’와 ‘爲着’는 기능적으로 동일하지만 사용빈도(310회, 77% : 95회, 23%)에 있어서는 차이가 크다.

넷째, ‘爲了/ 爲着’는 明代에 출현과 동시에 연동구조인 ‘爲了/ 爲着+O₁+V₂(+O₂)’ 형식과 비연동구조인 ‘爲了/ 爲着+O₁’, ‘爲了/ 爲着+O₁, Sp’, ‘爲了/ 爲着+O₁, V₂(+O₂)’ 형식에 출현하였다. 또한 출현빈도에 있어서도 비연동구조에 출현한 경우가 연동구조에 출현한 경우보다 훨씬 많다.

爲了 : 비연동구조(250회, 83.1%) > 연동구조(51회, 16.9%)

爲着 : 비연동구조(62회, 65.3%) > 연동구조(33회, 34.7%)

다섯째, 비연동구조인 ‘爲了/ 爲着+O₁’, ‘爲了/ 爲着+O₁, Sp’, ‘爲了/ 爲着+O₁, V₂(+O₂)’ 형식은 사건 발생의 원인이나 목적을 나타내는 복합전치사 ‘爲了/ 爲着’의 비전형적인 용법으로 인해 출현한 것이다.

여섯째, 연동구조보다 비연동구조에 더 많이 출현하는 출현양상과 연동구조에 출현하는 경우에도 동사로 분석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볼 때 ‘爲了/爲着’는 기존의 전치사 ‘爲’에 접미사 ‘了/着’가 결합해서 출현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으로 明清시기~現代시기에 출현한 ‘爲了/爲着’의 사용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 연원 문제도 논의해보았다. 본고에서 심층적으로 다루지 못한 ‘了/着’의 성격과 출현 원인, 기존의 전치사 ‘爲’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복합전치사 ‘爲了/爲着’가 출현한 원인 등에 대한 고찰은 후속 연구에서 계속해보고자 한다.

〈參考文獻〉

- (南朝·宋) 劉義慶 編, 《世說新語》, 北京, 中華書局, 2011.
 (唐) 黃征·張涌泉 校注, 《敦煌變文校注》, 北京, 中華書局, 1997.
 (南唐) 靜·筠 禪僧編, 張美蘭 校注, 《祖堂集校注》, 北京, 中華書局, 2008.
 (宋) 黎靖德 編, 王星賢 點校本, 《朱子語類》第7冊, 北京, 中華書局, 1994.
 (元) 徐沁君 校点, 《新校元刊雜劇三十种》, 北京, 中華書局, 1980.
 (元) 鄭光 主編, 《原本老乞大》, 北京, 外研社, 2002.
 (明) 蘭陵笑笑生 著, 戴鴻森 校点, 《金瓶梅詞話》,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92.
 (明) 施耐庵·羅貫中 著, 李永祜 点校, 《水滸傳》, 北京, 中華書局, 2005.
 (明) 西周生 輯著, 李國慶 校注, 《醒世姻緣傳》, 北京, 中華書局, 2005.
 (明) 羅貫中 著, 劉世德·鄭銘 点校, 《三國志演義》, 北京, 中華書局, 1995.
 (明) 馮夢龍 編著, 嚴敦易 校注, 《警世通言》,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94.
 (明) 馮夢龍 編著, 顧學頡 校注, 《醒世恒言》,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94.
 (明) 馮夢龍 編著, 許政揚 校注, 《喻世明言》,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94.
 (明) 凌蒙初 編著, 陳邇冬·郭雋杰 校注, 《初刻拍案惊奇》,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95.
 (明) 凌蒙初 編著, 陳邇冬·郭雋杰 校注, 《二刻拍案惊奇》,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95.
 (清) 曹雪芹 著, 《紅樓夢》,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82.
 (清) 劉鶚 著, 《老殘游記》,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1.
 (清) 文康 著, 《兒女英雄傳》,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1.

(清) 吳敬梓 著,《儒林外史》,北京,中華書局,1982.

(現代) 北京大學漢語語言學研究中心, CCL語料庫檢索系統

(http://ccl.pku.edu.cn:8080/ccl_corpus/index.jsp?dir=xiandai)

李憶民 主編,《現代漢語常用詞用法詞典》,北京,北京語言文化大學出版社,1995.

羅竹風 主編,中國漢語大詞典編輯委員會·漢語大詞典編纂處編纂,《漢語大詞典》,漢語大詞典出版社,1992.

北京大學中文系1995-1997級語言班編,《現代漢語虛詞例釋》,北京:商務印書館,1982/2010.

陳昌來,〈漢語介詞的發展歷程和虛化機制〉,《柳州職業技術學院學報》,第3期,2002.

——,〈介詞與介引功能〉,安徽,安徽教育出版社,2004.

馮春田,《近代漢語語法研究·介詞章》,濟南,山東教育出版社,2000.

馮春田 主編,《明清山東方言語法研究》,濟南,山東教育出版社,2012.

郭 飛,〈《新序》中“爲”字的用法研究〉,《語言應用研究》,2011.

金昌吉,《漢語介詞和介詞短語》,天津,南開大學出版社,1996.

康國璋,〈引進動作行為受益對象的介詞“爲”之起源〉,《殷都學刊》,第2期,1999.

雷冬平,《近代漢語常用雙音詞演變研究及認知分析》,北京,中國社會科學出版社,2008.

劉月華 等,《實用現代漢語語法》,北京,商務印書館,1983/2007.

呂叔湘 主編,《現代漢語八百詞》,北京,商務印書館,1980/2007.

麻彩霞,〈現代漢語介詞語法化研究述評〉,《漢字文化》,第1期,2009.

馬貝加,《近代漢語介詞》,北京,中華書局,2002.

石毓智,〈時間的一維性對介詞衍生的影響〉,《中國語文》,第1期,1995.

史冬青,〈論漢語動詞的介詞化因素〉,《山東教育學報》,第4期,2009.

孫錫信,《漢語歷史語法要略》,上海,復旦大學出版社,1992.

太田辰夫 著,蔣紹愚·徐昌華 譯,《中國語歷史文法》,北京,北京大學出版社,1958/2005.

萬 瑩,《相似介詞“X”與“X着/了”比較研究》,華中師範大學博士學位論文,2006.

王 力,《漢語史稿》,北京,中華書局,1980/2004.

張 斌 主編,《現代漢語描寫語法》,北京,商務印書館,2010.

張 楨,《漢語介詞詞組詞序》,北京,北京語言文化大學出版社,2002.

趙大明,《〈左傳〉介詞研究》,北京,首都師範大學書版社,2008.

周四貴,《元明漢語介詞研究》,蘇州大學博士學位論文,2010.

朱麗·李明, 〈《禮記》中的“爲”〉, 《邢台學院報》, 第1期, 2012.

이성하, 《문법화의 이해》, 서울, 한국문화사, 1998.

최재영·권선아, 〈전치사 ‘趁(着)’의 문법화 小考〉, 《중국어문논역총간》, 제30집, 2012.

〈中文提要〉

复合介词“为了/ 为着”考察

崔宰荣·权仙娥

本文通过对于明清时期13种文献和5位现代文学家的小说中出现的复合介词“为了/ 为着”进行穷尽式分析和考察, 试图探复合介词“为了/ 为着”的来源. 考察内容如下:

第一、复合介词“为了/ 为着”开始出现于明代.

第二、在明清时期复合介词“为了/ 为着”的宾语仅限于名词(词组), 到现代“为了/ 为着”的宾语成分扩大, 即可以名词(词组), 也可以动词(词组)以及小句.

第三、复合介词“为了”和“为着”的功能完全一致, 但使用频率上(310次、77%: 95次、23%)却有很大差别.

第四、复合介词“为了/ 为着”已在明代不仅在连动结构“为了/ 为着+O₁+V₂(+O₂)”出现, 也可以在非连动结构“为了/ 为着+O₁”、“为了/ 为着+O₁, Sp”、“为了/ 为着+O₁, V₂(+O₂)”.而出现在于非连动结构的情况比出现于连动结构更多, 具体情况如下:

为了: 非连动结构(250次、83.1%)>连动结构(51次、16.9%)

为着: 非连动结构(62次、65.3%)>连动结构(33次、34.7%)

第五、非连动结构“为了/ 为着+O₁”、“为了/ 为着+O₁, Sp”、“为了/ 为着+O₁, V₂(+O₂)”是由于表达“原因”或“目的”的复合介词“为了/ 为着”的非典型用法而出现的.

第六、复合介词“为了/ 为着”是已有的介词“为”带有词缀“了/ 着”而出现的.

關鍵詞: 近代汉语, “X+了/ 着”, 复合介词, 为了, 为着, 语法化

이 논문은 2014년 7월 15일에 접수되어 2014년 8월 10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14년 8월 15일에 편집회의에서 게재가 확정되었음.

www.kci.go.kr

